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

여 인 갑

(지메스피라미드코리아 대표)

면접시험에서 흔히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5년 후에 무엇이 될 포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이러한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어찌보면 어려운 질문같고 어찌보면 그런 계획조차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에 오늘을 뒤돌아 볼 때 당신이 남긴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이걸 좀 어려운 질문이 된다. 호랑이라면 가죽을 남길 텐데 하면서 머리만 극적일 사람이 한 둘이 하닐 것이다.

구태여 미래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아니 찾아보자. 이것이 내 작품이요 하고 떳떳이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 할 것이다.

예술가들이라면 작품을 남길 것이지만 정보산업계에서 그나마 소프트웨어를 주로 해 오던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다할 작품(?)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다.

옛날에 무슨무슨 시스템을 내가 개발했다 하고 자부심을 갖을 수도 있으나 그 시스템은 세월이 갈수록 진부화 되어 버렸고 이제는 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으니 거기서 나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모래밭에서 지나간 발자국찾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간단하다.

19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0년전에 우리 전문가협회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세계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몇몇 글을 포함하여 46명의 회원이 59편의 글을 123페이지에 꾸며 본 작은 작품이었다. 굳이 컬러 사진을 실어야 한다는 일부 회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다소 비용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고 있다.

제 1집을 만들 때에도 쉽지 안았다. 그렇지만 모든 역경을 헤치고 탄생한 소프트웨어 세계를 책장에서 가끔 눈이 맞을 때 나도 모르는 미소를 띄어 보며 슬며시 빼어 여러 회원들의 사진을 다시 한 번 쳐다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감회에 빠지기도 한다.

그 후 몇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세계가 제 2집까지 밖에 나오지 못한 것은 다분히 회원 전체의 무책임한 탓으로 밖에 돌릴 수 없다.

다행히 이번에 편집위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끈기로 제 3집이 나올 수 있다니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7년. 앞으로 10년후에 이번에 발간될 소프트웨어 제 3집을 다시 펴 볼때는 어떤 그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갈까 자못 궁금해지는 이 밤이다.